



<증미역 이야기 맛집>

Young.April

EP.01 2025.04

4월의
꽃보다

더 화사하고
포근했던

우리들의
이야기

!! 모먼트와 스토리의 오마카세 !!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지요.
곰탕 국물, 냉면 육수 한 모금만 먹어 보면 그 집의
내공이 확인되지요.
영림원소프트랩이 그렇습니다.
소문내지 않고 조용히 기술로, 문화로 산업과 사람을
보살펴 왔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알리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진실한 이야기가 사회에서 만들어낼 에너지를 기대하
기 때문입니다.
2025년 4월. 증미역 맛집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가장 신선한 제철 재료로
그때그때 요리합니다~~



Young
Challenger

Young
Moment



응원해요 영림원!



4월의 꽃보다
더 화사하고
포근했던
우리들의
이야기

Hunting
Cafe



Young Story



꿈꾸는 사람들



Young Rookie



데이터로 보는
영림원



With CEO

5월의 영림원은?



Young Challenger

“ERP 망망대해를 향해하라“

Do Your Best

인생 두 번째 커리어를 심는
시니어 컨설턴트 도전자들



ERP의 달인이 되는 그날까지~

2030부터 5060까지~ 한국, 중국, 일본까지~
ERP 삼매경에 빠진 컴잘러들~~

고수부터 하수까지, 나이부터 국적,
근무지, 살아온 인생 께적까지...
어느 것 하나 공통점을 찾기 힘든 스무명이
증미역 근처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ERP 세상의 심오함을,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기업 경영의 과학을.
도저히 출구가 안 보이는 미로 속에서,
옆에 앉은 동료와 강사의 도움을 받아가며
하나씩 길을 찾아가던 그들은 마침내
기업경영의 신경망이자 두뇌인 ERP 세상에
들어섰습니다.

"우연히 구인공고를 보고 지원했는데, 인생 2막을 이
렇게 의미 있게 보내게 될 줄은 몰랐어요."

- 시니어컨설턴트 도전자 남익재씨

"제 마지막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30년 넘는 재무
관련 경험을 쏟아 붓겠습니다."

- 시니어컨설턴트 도전자 정성식씨

"영리원과 장기적으로 함께하고 싶어요. 신뢰를
바탕으로 목적을 중시하며 주도적인 삶을 살아
간다는 비전을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 시니어컨설턴트 도전자 송현호씨



"ERP를 30년 가까이 했지만, 외산 솔루션은
우리에게 맞지 않는 듯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
요. 우리가 만든 솔루션이 세계인에게 딱 맞는
'맞춤'이 되는 날을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 시니어컨설턴트 도전자 이정수씨





출근에만 2시간 넘게 걸리는 이부터
증미역 근처에 숙소를 정한 이, 이번 교육을 위해
일본에서 5주간 출장을 온 이까지, 시니어 컨설턴
트 교육과정 참가자들의 열기는 증미역 주변에 때
이른 열대야(?) 기운까지 감동게 했습니다. 9시
부터 저녁 6시까지 입시학원 못지 않은 교육과정
을 소화하며 교육생들 사이에는 끈끈한 동지애가
싹텔었습니다. 교육을 전담하는 김태상님은 길잃은
양떼를 인도하느라 땀을 흘렸습니다.
그들이 ERP의 바다에 빠져있을 때,
창밖으로 벚꽃이 피고 졌습니다.
영림원은 2012년부터 시니어 컨설턴트들을 뽑아
재교육해 새 인생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이들은 ERP 실력자로 거듭났
니다. 영림원 일본 현지법인 근무자, 동남아 고객
을 지원하는 중국 출신 영림원 직원 등도
함께 했습니다.



"메뉴를 못 찾겠어요." "결과값이 안 맞아요."
시니어 컨설턴트 교육과정이지만 2030들이 함께 했습니다.
실력과 순발력으로 무장한 이들은 작업을 끝낸 후 삼촌, 이모뻘
교육생들의 도우미 역할까지 자청했습니다.

조장으로, 코치로 활약하는 'MZ들'

영림원 골드파트너의 95
년생 주니어 컨설턴트



비엔아이 김종현님

교육생 조장 역할도 ^^

개발자로 일하다 컨설팅을
하게 됐는데 좋은 타이밍에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업무적으로 부족했던 부분들이 하
나씩 퍼즐처럼 맞춰지며, 컨설턴트
로서의 감을 조금씩 잡아가고 있다
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경험을 바
탕으로 좋은 컨설턴트로 성장해 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클라우드WG 신지혜님

97년생 '일본어 교수'

입사 9개월차 주니어 컨설턴트인데,
이번 교육을 통해 시스템 흐름을 상세
하게 알게 돼 유익했어요. 특히 오랜
기간 현업에서 지내신 분들과 대화
하면서 지혜와, 인생 걸어오신 길에
대해 배우는 귀중한 경험이 됐어요.
앞으로 동료와 고객들에게 힘이 되는
컨설턴트가 되겠습니다!!

"어릴 적에 저스틴 비버가 좋아서..."
94년생 '영어 실력자'

이번 교육을 통해 낯설었던 용
어들이 하나둘 익숙해지고, 영
림원 ERP의 전체 그림이 머릿
속에 자연스럽게 그려졌어요.
이제 왜 이렇게 동작하는지가
이해돼요. 이번에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품질혁신단 문지현님

Young Story

1%의 마음이 피워낸 스물한 번째 봄

- 일프로클럽, 그 20년의 기억 -

4월 5일, 봄비가 조용히 내렸다.

촉촉하게 젖은 공기 속으로 하나둘, 장학생들이 발걸음을 옮겨왔다. 입학식처럼 설레고 졸업식처럼 몽글한, 일프로클럽 제21기 장학금 수여식이 그렇게 시작되었다.

졸업, 새로운 출발

올해 졸업생은 박재우, 강민상, 박한얼, 박영준, 안소현 학생으로, 각자의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더 다가갔다. 그중 안소현 학생은 무대에 올라 후배 장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를 들려줬다.

"대학이라는 새로운 세계는 아직 낯설지만, 그 낯섬 속에서 또 하나의 나를 찾아가고 있다"며 후배들에게 "꿈을 향해 씩씩하게 다가가 달라"는 말을 전했다. 목표한 대학에 가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따뜻한 선물이 전달되었다. 일프로클럽은 '결과'보다 '과정'을 먼저 바라보는 '꿈 공동체'이기에.

새롭게 시작하는 스물일곱개의 꿈

올해 선발된 장학생은 27명. 전국의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생들로, 의정부고, 가림고 등 각지에서 모였다. 이들은 '나의 꿈 설계서'를 통해 자신이 꿈꾸는 미래를 꺼내놓았고, 기존 장학생들은 '나의 성장이야기'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돌아봤다. 그들의 목소리에서 희망이 묻어났다.

"월급의 1%를 모아, 누군가의 미래에 투자하자." 2005년, 영림원 내부에서 나눔의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매월 월급의 1%면 모두가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바로 실천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싹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일. 영림원 전 직원들의 조용한 연대는 20년째 이어지며 한 기업이 사회에 줄 수 있는 온기를 확인시켜 줍니다.

2005년, 일프로클럽의 시작

2005년, 영림원은 매출도 지금처럼 크지 않았고, 나눔이라는 말이 지금보다 더 조심스럽던 시절이었다. 그럼에도 일프로클럽은 시작되었다. 이름처럼, 마음도 단지 '1%의 여유'에서 출발했지만 그 1%는 수많은 100%의 마음으로 자라 오늘까지 왔다.

서른일곱이 되었을 아이들

2005년, 열일곱살로 장학금을 받았던 어느 1기 학생은 지금 서른일곱이 되었을 것이다. 그는 어찌면 지금, 초등학교 교실에서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선생님일지도 모른다. 혹은 지방 소도시의 한 병원에서, 환자의 손을 잡고 있는 간호사일 수도 있다. 누군가는 산업 현장에서 치열하게 뛰고 있을 것이다. 누군가는 자신이 받은 1%를 누군가에게 다시 보내고 있을 것이다.

일프로클럽은 '당신의 가능성을 믿는다'는 조용한 선언이자 믿음의 실천이었다. 그리고 그 믿음은, 20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

봄비 속에서 더 빛났던 하루

수여식의 하늘은 흐렸지만, 장학생들의 말 한 마디, 웃음 하나하나가 마치 햇살 같았다. 누군가 나를 믿어준다면, 나도 언젠가 누군가를 믿어줄 수 있다. 1%의 나눔은, 100%의 마음을 키운다.

일프로클럽 20년

지원 대상
고등학교
대학생

장학재단
2020년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 허가

장학생 현황
매년 40여명 후원
총 383명 후원

지은보육원
지원사업
매월 10만원 장학금
자립지원금으로 전달





소식은 나누고, 성장은 함께하고...
행사 후엔 별별 모임으로 함께하는

질문과 대화의 시간 'Y-Day'

"글쎄요..., 과연 뭘 했을까요? 주식이나 비트코인을 샀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겠죠? 하하."

영림원소프트랩 송기연 제조유통사업부장이 무대에서 꺼낸 한 마디에 장내에서 웃음이 터졌다.

"그런 것까지 바라는 건 무리일 것 같고.... 몇몇 프로젝트는 피했으면 좋겠네요. 특히 몇몇 기업이 생각 나네요. 그런 곳은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 쯤에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는 거죠."

4월 11일, 서울 강서구 예원문화센터. 영림원의 봄 'Y-Day'에서는 유쾌한 질문과 대화가 오고갔다.

Q 익명이어도 괜찮아, 우리가 묻고 싶은 이야기
"재벌집 막내아들처럼 과거로 돌아가면 무엇을 할 건가요?" "이 조직의 진짜 업무 방향은 뭔가요?"
'영통해요'는 꺼내기 망설여지는 질문을 익명 질문앱 '에버레스크'를 통해 꺼내면 전 직원과 함께 답을 들을 수 있는 코너다. 무대에 오른 5명의 리더는 어느 때보다 솔직했다. 질문이 결국 얼굴을 마주하는 대화로 이어지는 것. 그게 영통해요의 진짜 가치였다.

나의 철학을 꺼내놓는 시간

이날 무대에선 기업문화도서 독후감 콘테스트 시상식도 열렸다. 1등에게는 200만원의 상금이 주어졌다.

독서를 통해 조직의 변화 방향을 담은 아이디어가 싹텄다. '신뢰', '목적', '주도'를 키워드로 하는 영림원의 기업철학 '영웨이'를 체화한 직원들에 대한 시상도 이어졌다. AI 시대에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가. 권영범 대표는 "AI를 부릴 것인가, 부림을 당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10년 뒤 우린 어떤 존재로 살아갈까요. 질문을 멈추지 않아야 개인도, 기업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Q 오늘은 누구와 저녁을 먹게 될까?

Y-Day의 하이라이트는 전사 회식이다. 약 400명의 직원이 그때그때 다른 유쾌한 기준으로 8명씩 조를 짜서 만난다. 이날의 기준은 첫째 아이의 나이. 미혼자는 자신의 나이였다. 처음 이름을 듣는 사람, 몇 년 동안 인사만 스치던 사람까지. 각 식당 테이블마다 서로 다른 온도의 대화들이 피어났다.

★ 질문은 대화가 되고, 대화는 문화가 된다
질문하고 대답하고, 유쾌한 만남과 대화가 있는 조직은 몽골진 컬처파워를 갖게 된다. 요동치는 변화의 가운데에도 단단한 빛을 낸다. Y-Day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영림원의 사람들을 묶는 실타래 역할을 한다.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조용히, 단단히, 따뜻하게 연결되고 있다.



Hunting Cafe



아침 8시. 클라우드 카페에선 진한 커피향과 함께
은은한 음악이 흐릅니다. 새로운 날을 시작하는 설렘과
긴장감이 묘하게 교차합니다. 가지런히 줄선 텀블러들이
주인의 아침을 깨워줄 커피를 기다립니다. 헛개차나 쌍화
차를 찾는 이들도 종종 눈에 띄니다^^ 카페에서의 약속되
지 않은 팍팍 대화, 특별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좋아요"

이른 아침, 영림원 사내 카페 '카페 클라
우드'에 커피향이 퍼지고 있을 무렵. 커피를 사이에 두고 앉은 두 사람에게 팍팍
인터뷰 제안을 했다. 당황할 법도 한데
반갑게 수락했다. 5살 차이 나는 국내클
라우드사업부 박지혜님과 고객가치실현
팀 최수민님은 한 부서에서 일하다 이제
팀이 달라졌지만 친구처럼 지낸다.

"어떤 일을 하나요?"

 박지혜님 "고객과 파트너들이 우리 클라
우드 솔루션을 쓰면서 불편이 없도록 지
원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기능에 대한
궁금증, 물어졌으면 하는 어려움에 대해
해법을 찾아주는 거죠.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일이 있으면 파트너가 먼저 해결하
고 다음 단계는 우리가 나서요. 더 깊이
있는 부분은 연구소도 나서죠."

 최수민님 "ERP와 관련해 전반의 사업
활동을 하는 고객가치실현팀에서 제조유
통산업군 고객 대상 유지관리 업무를 맡
고 있어요. 고객과 파트너들이 우리
ERP를 도입하거나 쓰면서 도움이 필요
할 때 우리가 나서죠."



인터뷰의 마무리는
셀카 한 컷!

고객가치실현팀 최수민님

국내클라우드사업부 박지혜님

"요즘 많이 하는 생각은 뭔가요?"

 박지혜님 "남편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사내 커플
인데, 올해 1월에 결혼 후 얼마 안돼 해외사업 수행을 위해
현지로 갔어요. 장기 프로젝트라 한참 걸릴 것 같아요. 그래도
두 달에 한 번은 휴가 내고 들어오니 다행이에요. 5월에 다시
볼 수 있어요. 사실 입사하게 된 게, 남편이 먼저 다니고 있어
서 영림원을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결국 결혼에도 골인했고
요. 좋은 회사니까 가능한 일이겠죠?^^"

 최수민님 "요즘 머릿속에 '성장'이라는 단어가 가득해요. 고
객사의 실제 업무를 더 잘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일의 본질을 더 깊이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팀장님
과의 면담 이후, 누군가가 나의 성장을 지켜봐 준다는 생각에
이런 마음이 더 강해졌죠."

마라탕, 쌀국수, 그리고 필라테스

대화는 점점 맛있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회사 근처 마라탕집과
쌀국수집, 맛있는 빵집 정보가 모였다. "밥은 나가서 먹는 게
진짜 꿀맛이죠. 일탈이 아니라 '환기'같은 거예요." "테니스
동호회에 들까 생각 중이에요." "필라테스 동호회 좋아요. 줌
박는 끝나고 씻어야 하는데 필라테스는 안 그래도 되죠."
늘 친하지만 주말만큼은 철저히 '개인 시간'. "서로 언니, 동생
부르지만 주말엔 절대 연락 안 해요. 그래야 오래가요." 듣는
사람의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다. 일도, 관계도, 운동도 균형
을 찾는 이들. 그래서일까, 함께 있을 때 더 유쾌했다.



데이터로 보는 영림원

“MBTI로 본 영림원의 다양성 보고서”

영림인들에게 가장 많은 MBTI 유형은 뭘까요? 또, I와 E, P와 J 중 어떤 형이 더 많을까요? 익명으로 자유롭게 질문과 답을 주고받을 수 있는 '에버레스크' 앱에 모인 결과입니다.

🎯 TOP 3 MBTI는 바로~~

- 1 ISTJ (21표, 11.54%)
- 2 ISTP (20표, 10.99%)
- 3 ISFJ (18표, 9.89%)

정리하자면, 조용하지만 일 잘하는 실무의 달인들이 가장 많다는 이야기! “말은 적지만 일은 칼같이!”를 좌우명 삼는 분들이 곳곳에 포진하고 있다는 ^^

“일 잘하는 덴
다 이유가
있었어!!”

💡 I(내향) 유형이 압도적 다수

I 유형이 E 유형보다 2배 이상 많음
“조용히 집중하고, 말보다 결과로 보여주는 스타일”
회의는 조용하지만, 결과는 시끄러운(!) 타입의 집합체!
한마디로, 말보다 데이터, 논리보다 실적!

🔍 T(사고형)의 존재감

T가 감정형(F)보다 비율 무세
특히 ISTJ, ISTP, INTJ 등 논리 파들이 다수 포진
감성보단 논리, 동기부여보단 구조화된 시스템을 더 신뢰! 영림원의 기획서가 세심하고 견고한 이유, 여기 있습니다.

💡 S 유형(감각형)의 강세

상위 6개 유형 중 5개가 모두 S!
ISXX / ESXX 타입이 무려 전체의 약 70%~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사고를 중시하는 영림원 DNA,
“뭘 하든, 실행이 먼저!” 회의보다 실행, PPT보다 실물 중심!

순위 MBTI 응답수 비중

1	ISTJ	21표	11.54%
2	ISTP	20표	10.99%
3	ISFJ	18표	9.89%
4	ISFP	17표	9.34%
5	ESFJ	16표	8.79%
6	ENFP	12표	6.59%
7	INFJ	11표	6.04%
8	INTP	10표	5.49%
9	ENFJ	10표	5.49%
10	INTJ	9표	4.95%
11	INFP	9표	4.95%
12	ENTJ	9표	4.95%
13	ESTJ	7표	3.85%
14	ENTP	6표	3.30%
15	ESTP	4표	2.20%
16	ESFP	3표	1.65%
총계		182표	100%

😂 소수지만 존재감 있는 F, E들

ENFP, ENFJ, ESFJ, ISFP 등
F(E) 유형은 총합은 적지만, 회사의 활력소, 연결자, 이벤트 리더 역할을 톡톡히 하는 분들!
“생일 챙기고, 팀 분위기 띄우는 이분들 덕에 영림원의 '감성지수'는 올라갑니다.

📊 가장 희귀한 형은?

가장 적은 형: ESFP(3표, 1.65%)
“축제의 중심을 좋아하는 이 유형이 적다는 건... 아마도 영림원은 축제보다 프로젝트?”
상대적으로 균형 있는 분포지만, 내향적 + 논리적 + 실행 중심이라는 색이 명확!!

🧠 한 줄 정리!

“분석적이고 조용하지만, 깊이 있게 몰입하는 영림원 사람들!
그 속에서 따뜻하게 웃음을 불어넣는 몇몇 ENFP와 ESFJ들...
이 조합, 꽤 괜찮죠?”

*전직원 중 설문응답자 기준
(2024년 9월)



꿈꾸는 사람들

영림인들 만큼이나 도전과 꿈꾸기를 좋아하는 이들을 찾아갑니다



DREAMER



박태영 홀릭스 대표

박태영 홀릭스(HOLIX) 대표는 하루 일과의 90%를 인공지능(AI) 공부와 연구에 할애한다. 매일 새벽 4시 50분에 기상한 후 오전 5시 30분 사무실로 출근해 하루 12시간 AI 연구에 매달린다. 저녁 8시에 귀가해 10시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일상의 전부다.

AI 피보팅에 매진한 창업가

"지금껏 없던 배움방식 만들 겁니다"



박 대표는 "지금은 '와신상담 프로젝트' 기간이다. 회사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서 세상 어디에도 없는 서비스를 만들고자 한다"면서 "AI를 중심으로 서비스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게 핵심"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2012년 서울대 재학시절 에듀테크 스타트업 '에듀캐스트'를 창업해 국내 최대 온라인 강의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10년 후엔 '지식 정보 커뮤니티 플랫폼'인 홀릭스로 피보팅했다. 지금은 홀릭스를 AI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또 한번의 변신기다. 스스로 '창업가이자 연구자'라고 말하는 그는 앞으로 업종 상관없이 모든 기업이 AI를 쓰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박 대표의 창업은 우연에서 출발했다.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재학 시절, 수학수업 신청에 착오가 있어서 수업을 제대로 못 따라가는 불상사가 생겼다. 그를 도와준 것은 선배들이 남긴 CD 강의였다.

재미로 개발한 앱으로 창업...누적투자 유치 100억

"그런데 당시 CD를 넣을 수 있는 컴퓨터가 없었어요. 아이폰이 막 나왔고, 앱스토어에 친구들이 재미삼아 앱을 만들어 올리던 시기였죠." 그는 강의 플랫폼을 앱으로 만들어 보자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7명짜리 자취방에서 친구들과 개발을 시작했다. 그렇게 세운 회사가 에듀캐스트다. "세계적으로도 유사한 시도가 거의 없었죠. 2011년에 세계 최초의 스트리밍 기반 강의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에듀캐스트는 빠르게 성장했다.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하면서 누적 투자 100억원을 유치했다. 카카오, 기업은행 등이 주요 주주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경쟁자가 없었다. "연매출 수십억 원을 기록했어요. 가만히 있어도 성장하던 퍼스트무버 시기였죠."



"경쟁하기보단 우리만의 존재 가치 찾을 것"

하지만 2019년부터 시장 상황이 달라졌다. "코로나 이후 전 세계적으로 돈이 미친 듯이 풀렸고, 유사 업체만 200개쯤 생겼어요. 자금이 넘치니 강사들을 역마진으로 빼가기 시작했죠."

박 대표는 고민을 시작했다. "단순히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존재하는 회사가 아니라, 독자적 가치로 존재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국내 성인 교육 시장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성인은 공부를 안 할 자유가 있어요. 극소수만 공부하죠. 그 시장에서 인기 강사에 대한 싸움이 치열해요."

박 대표는 2021년부터 덩치를 줄이고 체질을 바꾸기 시작했다. "교육이 단순히 자격증 따고 끝나는 기능적 서비스가 아니라, 배움의 커뮤니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AI, 개발자 열명, 스무명 뭉 하죠"

2023년 초, 그는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40명이 넘었던 인원을 대폭 줄이고, 그동안 놓친 게 뭔지 되돌아봤습니다. 문서화도 하고, 그동안 걸어온 길을 회고하면서 다음 길을 준비했죠."

현재 시도 중인 변화는 A부터 Z까지 AI다. 그는 AI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전제가 있다. "AI는 도구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고객을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할지, 고객의 수요를 정확히 알아야 AI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요."

특히 개발자 생태계에서는 'AI발 상전벽해'가 일어났다. 박 대표 역시 개발자 출신인 만큼 그 변화를 누구보다 피부로 느낀다. "실력 있는 개발자가 AI를 잘 쓰면 개발자 10~20명 뭉을 합니다. 이미 저 역시 AI만으로도 10명 정도의 개발자와 함께 일하는 효과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 12시간, AI와 개발을 공부합니다."

"와신상담 끝나면 업계 표준 될 겁니다"

홀릭스의 현재 주요 서비스는 영상강의와 채팅방이다. 여기에 더해 AI와 채팅방을 결합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오픈 플랫폼인 만큼 누구나 등록절차를 거치면 채팅방이나 영상강의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규모를 대폭 줄였지만 AI 덕분에 다양한 일을 해낸다. 조만간 AI 기반의 콘텐츠와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박 대표는 교육의 본질을 '존재의 가치'에서 찾는다. "존재를 못 채우니 소유로 채우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육도 돈 버는 법에만 사람들이 몰리죠. 저는 사람들이 성장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그는 홀릭스를 통해 막연한 성장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강의는 무겁고, 유튜브도 한계가 있어요.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며 배우고 계속 참여하는 플랫폼이 되고 싶어요. 성장은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박 대표는 경쟁을 하지 않는다. "아예 경쟁하지 않는 게 제 스타일이에요. 산업 자체의 진보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남들이 못 본 것, 못 한 것을 해서 해자를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게 하는 것, 그게 목표입니다."

그는 지금도 와신상담 중이다. "AI 생태계가 성숙되면 와신상담도 끝나죠. 지금은 그 마지막 단계를 지나고 있어요. 안정된 토대가 마련되면, 우리가 만든 방식이 업계 표준이 될 겁니다."



응원해요, 영림원!!

영림원을 아끼고 응원하는
'Y치어러즈(Y-Cheerers)'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이은중 대표님의 미소가 매력
적이죠?뱅크웨어글로벌은 금
융기관의 거래를 지원하는 솔
루션을 파고드는 기업이죠. 영
림원과 닮은 덩치, 비슷한 색
깔의 보물같은 기업이죠~!

“쉽지 않은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곳곳하게
철학을 가지고 역사를 써 가고 있는 영림원소
프트랩,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참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영자와 직원들이
같은 비전을 바라보고 단단한 구심점을 이루
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에서 다른 기
업들이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직원을 생각하고 인재를 키워가는 기업과,
회사와 일에 대해 대단한 애착을 가진
직원들이 힘을 모아서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영림원만의 색깔과 문
화를 가지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이어가길 응원합니다.



이은중 뱅크웨어글로벌 대표

포즈도 센스있게 Y로 ^^



모상록 한국과학기술연구
원(KIST) 원장님은 한
국을 대표하는 로봇 연구
자이면서 대한민국 과학
기술 경쟁력을 책임지고
계시죠~

“영림원소프트랩은 개인적으로 협력 경험이
있지는 않지만 좋은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량기업이 기업문화 혁신을 지향점으로 삼
고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니 기대가 큼니다.
무릇 탁월한 인재를 발굴해서 적재적소에서 마음
껏 뽐낼 기회를 펼치게 하는 것이 기업이든 기관이든
경영하는 사람의 으뜸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탁월한 인재를 발굴하고 그들의 성장을 이끌어가
는 권영범 대표님의 철학에 탄복할 뿐입니다. 영
림원이 국내 조직문화 확산의 구심점 역할을 하
기를 응원합니다!!



모상록 KIST 원장

With CEO



“권영범님은 주말 아침을 어떻게 보내시나요?”

빠르게 돌아가는 비즈니스의 흐름 속에서도 늘 “질문이 중요하다”, “독서하자”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 권영범님. 그의 생활 루틴 안에 어떤 경영 철학이 녹아 있을까요? 직접 여쭙봤습니다.

평소 궁금했던 그의 주말 아침, 함께 들여다 보시죠.

“권영범님의 삶과 생각, 일상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시간 괜찮으세요? 일에 집중하는 시간이 아닐 때의, 살짝 더 부드러운 모습을 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나 원래 부드러운 남잔데...”

대화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Q. 주말 아침은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A. “일요일엔 남산을 올라요. 6시쯤 퇴계로 쪽에서 올라가는데, 초입에선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야 해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모르면 남산순환길이 나와서 숨을 돌릴 수 있죠. 1km 정도 걷다가 다시 정상을 향해요.”

Q. 정상까지 가시나요? 요즘 풍경이 정말 좋겠네요.

A. “정상까지 가야 등산 하는 맛이 나죠. 1시간 50분 정도 걸려 산을 오르내리다 보면 폐활량이 좋아지는 게 느껴져요. 지난주 일요일(13일)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눈이 왔어요. 애써 핀 벚꽃이 모두 떨어져 있더군요.”

Q. 아침식사는 어떻게 하시나요? 주말 아침 아침식사를 포장해서 귀가하는 애처가 분들이 있더군요.

A. “그런 건 안 해봤는데... 8시쯤 집에 와서 빵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독서 타임을 즐기죠.”

Q. 역시 주말에도 책과 함께 하시는군요. 요즘 어떤 책을 보시나요?

A. “닉 레인이 쓴 ‘미토콘드리아’를 읽고 있어요. 앞서 ‘세포의노래’(싯다르타 무케르지 저)를 읽고 나서 이 책으로 넘어왔죠. 미토콘드리아는 특별한 세포 내 소기관이에요. 세포 속 에너지 발전소이면서 세포핵과 별도로 자체 DNA를 가지고 있죠. 거기엔 세포가 더 이상 제역할을 못할 때 말끔히 없애는 사멸 과정의 스위치 역할을 해요.”



권영범 영림원소프트랩 대표

하루에만 몸속 세포 중 약 100억개가 새로 교체된다고 해요. 1년엔 90% 넘게 새로 바뀌는 거죠. 그 과정에서 세포가 말끔하게 치워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연의 신비는 정말 대단해요.”

Q. 독서량이 정말 대단하신 거 같아요. 1년엔 책을 몇권 정도 읽으시나요?

A. “50~60권 정도 읽어요. 수학적 사고와 독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책을 읽으며 기억하고 싶은 내용은 밑줄을 그어둔 후 나중에 스캔해서 보관해요. 찾아보고 싶을 때 편하게 검색할 수 있거든요.”

권영범님의 일상을 따라가 보니, 혁신과 문화를 모두 포용하는 내면의 힘이 어디에서 왔는지 가늠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달엔 또 어떤 질문과 답을 나눌 수 있을까요? 질문이 곧 성장이니, 계속해서 묻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5월의 영림원은?



AI, ERP 전략, 리더십 회복, 고객과의 만남까지



[5월 8일 (목)]

- CEO포럼 205회
- 주제: 정·반·합의 경영 원칙
- 장소: 더플라자호텔



[5월 14일 (화)]

- 엔터프라이즈 AI 전략 세미나
- 공동주최: MS, 영림원 외
- 장소: 한국MS 광화문 본사



[5월 16일 (금)]

- 차세대리더포럼
- 주제: 번아웃 예방과 자아 회복
- 연사: 윤대현 교수
- 장소: JW메리어트호텔



[5월 20일 (화)]

- ERP 교체 전략 가이드 세미나
- 협력사: 다우기술, 웹케이 외
- 장소: 엘타워



[5월 21일 (수)]

- 고객사 전산인 모임 (수원권)
- 장소: 수원 노보텔



[5월 28일 (수)]

- AI WAVE 2025
- 발표자: 권기석 부문장
- 장소: 롯데호텔 소공동



[5월 30일 (금)]

- 가인지컨퍼런스 홍보부스 참가
- 브랜드: 에버타임, 에버페이롤, 에버인
- 장소: GS타워 아모리스

봄의 끝자락, 초여름을 향해 나아가는 5월. 계절만큼이나 풍성하고 다채로운 활동을 이어갑니다. 4월 1일부터 시작한 ERP 시니어 컨설턴트 교육과정이 5주의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가정의날을 맞아 다양한 활동도 진행됩니다. 5월에도 영림원은 기술과 문화, 고객과 사람을 잇는 활동을 이어갑니다.



Young Rookie



남익재님

정성식님

송현호님

이정수님

4월 영림원의 새 식구는 시니어컨설턴트(자회사 에버컨설팅 소속)에 도전한 남익재, 송현호, 이정수, 정성식님과 콘텐츠실장으로 합류한 안경애님입니다. 영림원에서의 리즈 시절을 응원합니다~~

첫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제 첫 요리이자 첫 손님 접대는 삶은 감자였습니다. 일곱살 즈음, 동네 할머니들을 대접하고자 했죠. 껍질도 안 깎 감자를 흠만 씻어내고는 냄비에 담아 삶아드리자 할머니들이 맛있게 드셨던 게 기억납니다. Young.April은 그 때의 삶은 감자처럼 투박하고 부족한 요리입니다. 그렇지만 재료가 좋으면 요리는 실패하기 힘들죠. 다음엔 더 재미있고 따뜻하게 만들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5월은 더 푸르른 날들 되세요~!! / 콘텐츠실 안경애 naturean@



바쁘게 흘러가는 하루 속, 소식지가 잠시 쉬어가는 티타임처럼 느껴지셨길 바랍니다. 따스한 4월의 햇살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포근한 여유가 머물기를 바라며, 다음 호에서 더 반가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 콘텐츠실 조예솔 yscho@



짧은 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변덕스러운 날씨에 완전한 봄을 느낄새도 없어 아쉬웠는데, 따뜻하고 싱그러운 소식지가 만들어져 4월의 봄을 간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월 계절과 추억을 담은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콘텐츠실 박정미 jmpark2303@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이게 되어 기쁘고, 매달 어떤 이야기가 담길지 설렙니다. 바쁜 업무를 소화하는 영림인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코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영림인들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풍부한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 콘텐츠실 최보인 bichoi@



다음달은 Young.May로 옵니다. 영림원의 이야기는 모두가 함께 만드는 작품이자 우리들의 기록입니다. 읽고 난 후기, 새로운 코너 아이디어, 신고 싶은 글, 소재 추천 기다립니다.

© 2025 Young.April

기획·발행 | 영림원소프트랩 콘텐츠실

모든 콘텐츠는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www.ksystem.co.kr

